

#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Perceived Peer Relations

임 정 하  
Lim, Chung ha  
정 옥 분\*\*  
Chung, Ock boon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sex and grade difference in perceived peer relatio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perceived peer relations. The subjects were 365 children and their mothers. Instruments were the Children's Social Competence Questionnaire (Lee, 1993) and the modified version the of Social 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 (Han, 1996). Data were analysed by F-test, Pearson'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erceived peer relations differed by sex and grade in some sub-domains. The social support, intimacy, and companionship of perceived peer relation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social competence. The social support of perceived peer relations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ffect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 내 다양한 관계들은 각각 고유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중 또래관계의 경우는 특히 아동 중기를 전환점으로 하여 점차 아동발달에 있어 중요한 관계로 등장하게

된다.

또래관계에서는 긍정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요인도 나타나는데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에 적응하거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과 연관이 되기도 하고(Kramer & Gottman, 1992) 학문과 사회적 도전에 대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Ladd, 1981). 반면 아동들

\* 본 논문은 1996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은 또래관계에서 부정적인 측면의 대립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Cole & Cole, 1993).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질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질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선행 연구들(Diaz & Berndt, 1982; Furman & Buhrmester, 1992; Gavin & Furman, 1989)에 의하면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또래관계에서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까지의 기간은 또래가 인생의 다른 시기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평가되는데 이것은 이 시기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사회성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Cole & Cole, 1993; Costin & Jones, 1992; Rubin, 1983). 또래관계에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사회 인지 발달을 촉진시키고, 이는 사회적 능력 발달에 기초가 된다(Pellegrini, 1985). 그러나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아동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실행할 기회가 점차 줄어들게 되므로, 사회적 능력을 획득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결국 또래관계는 아동의 사회화와 궁극적인 적응에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아동기에는 이전 단계에 비하여 또래와 보내는 시간과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동등한 위치에서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가정에서라면 습득하기 어려운 사회적 능력의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사회적 능력이 발달되는 중요한 맥락인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또래관계와 이후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관련된 연구들(이미순, 1995; 이숙과 정미자, 1995; Coie, Dodge, & Coppotelli, 1982; Dodge, 1983; French & Waas, 1985)은 대부분 사회측정법을 이용하여 아동을 집단별로 구분한 후, 집단에 따라 아동의 행동 특성이나 사회 인지적 능력이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적응력을 예측하였다. 그러나 몇몇 연구에 의하면, 같은 집단으로 분류된 아동들 내에서도 이후 발달상 적응력과 관련된 변인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Asher, 1983; Parkhurst & Asher, 1992; East & Rook, 1992). 예를 들어 무시되거나 고립된 아동 집단으로 분류된 아동들이 새로운 놀이집단이나 새 학년에서 보통 아동들과 같은 적응력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아동들이 지각한 외로움이나 자아지각을 살펴본 연구(Asher, Hymel, & Renshaw, 1984; Boivin & Begin, 1989)에서도 동일 집단으로 분류된 아동들이 동질적이지 않으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측정법에 의한 집단별 구분 방법이 개인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명백한 차이점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또래관계가 아동 개인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단별 차이가 아닌, 개인적 수준에서 지각된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 자신이 지각한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아동 개인이 지각하는 또래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주변인의 관점이 아닌 아동 내부의 관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며, 아동의 지각이 아동 개인의 행동과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이 사회측정법에 의하여 어떤 집단에

속하든지간에 대부분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 개인 수준에서 지각한 또래관계와 이후 아동의 적응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아동 중기에서 후기까지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이에 관한 발달적 관점에서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이를 통해 아동기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또래간 상호작용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이상의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는 성별과 학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Ⅱ. 선행 연구 고찰

### 1. 또래관계

또래관계는 일반적으로 수직적이기 보다는 수평적 구조로(Hartup, 1992), 또래간의 상호작용은 평등성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아동과 성인간의 상호작용과 뚜렷이 구분된다(Furman & Buhrmester, 1985).

최근 80년대 이후에 몇몇 연구자들이 또래간 상호작용에 관심을 보이며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상호작용을 발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이들은 또래관계에서의 친밀감이나 우

의와 같은 긍정적 상호작용과 대립과 같은 부정적 상호작용에 대하여 다루었는데, 각 특성들은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래관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친밀감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여 청소년기가 됨에 따라 친밀감을 더욱 높게 지각하게 된다고 하나(Berndt & Perry, 1986; Diaz & Berndt, 1982; Hunter & Youniss, 1982), 연령증가에 따라 친밀감 수준이 높아지지 않은 경우(Buhrmester, 1990)도 찾아볼 수 있다. 또래관계에서 친밀감을 지각하는 수준은 여아가 남아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Buhrmester & Furman, 1987; Hunter & Youniss, 1982)가 있는 반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연구(Berndt & Perry, 1986; Sharabany et al., 1981)도 있다. 그러나 또래관계에서 우의를 다룬 연구들은(Buhrmester & Furman, 1987; Ellis, Rogoff, & Cromer, 1981)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아동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또래간 우의를 더욱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래관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대하여 다룬 몇몇 연구들은 대립이 일어나는 상황, 빈도, 지속 시간, 정도 등을 관찰하였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의하면 자유놀이와 같은 개방적인 상황에서는 친구사이가 친구가 아닌 사이보다 대립의 정도가 약하였으나(Hartup et al., 1988), 보드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폐쇄적인 상황에서는 친구간 대립이 친구가 아닌 사이보다 빈번히 일어나고 더욱 오래 지속되었다(Hartup et al., 1993).

또래관계에서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을 함께 살펴본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 Gavin과 Furman(1989)은 5학년에서 12학년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기와 청소년 후기보다는 청소년 전기와 중기에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더욱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Furman과 Buhrmester(1985, 1992)은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결속력, 애정, 자아가치감, 우의, 친밀, 상대적 주도권, 대립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질을 살펴보았는데, 여아는 남아보다 또래관계에서 친밀, 애정, 자아가치감을 더욱 높게 지각하였고 대립이나 처벌, 상대적 권력을 지각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이 지각하는 또래관계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 2.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

또래는, 특히 아동기 동안, 사회적 관계망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원으로,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는 사회성 발달을 증진시키는 것과 연관되어져 왔다. 즉, 또래 간의 상호작용은 아동이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Cole & Cole, 1993; Kramer & Gottman, 1992; Rubin, 1983).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uomi와 Harlow(1972)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또래의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고립된 상태에서 자란 원숭이의 비정상적인 사회적 행동을 치료하기 위해 정상적인 또래와 상호작용하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에게 노출시킴으로써 유의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를 응용한 Furman, Rahe와 Hartup(1979)의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위축된 4, 5세의 아동을 정상적인 또래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도록 한 결과, 위축되었던 아동들은 이

전에 비해 유의하게 사고적이 되었다. 또한 Kramer와 Gottman(1992)은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첫째인 아동이 또래와 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이후 태어난 형제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아동이 또래관계를 통해 획득한 사회적 기술은 형제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몇몇 연구자는 또래관계와 자아 존중감이나 자기 역량 지각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먼저 Hirsch와 Reischl(1985)은 12세에서 18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친구관계의 정도가 깊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부적응을 적게 나타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주리(1994)는 또래관계에서 지각한 정서적 지지, 협동이 아동의 자기 역량 지각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또래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자기 역량 지각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이는 강민주(1993)가 또래로부터의 지지와 자기 역량 지각이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한 것과도 일치한다. 또한 초등 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한중혜(1996)의 연구에서도 또래관계에서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친밀, 우의는 아동의 자기 역량 지각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고, 처벌과 주도권, 대립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아동들은 또래 간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적응에 필요한 기술을 발달시키게 되므로 또래관계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과 밀접히 관련됨을 예측할 수 있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내 5개 구에 소재한 5개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10개 학급의 남녀 아동 365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만 10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연령이 되면 Piaget의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 타인에 대한 관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타인에 대한 지각을 할 수 있어야 또래관계를 지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아동 중기에서 후기까지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그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로 발달적 관점에서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아는 48.8%, 여아는 52.2%였고, 4학년은 50.4%, 6학년은 49.6%였다. 그리고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아버지의 경우 50.1%, 어머니의 경우는 68.8%였으며, 직업에서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55.3%, 아버지는 행정관리직과 사무직이 40.2%, 판매직과 생산기능직이 39.8%였다.

## 2. 연구 절차

예비조사를 거쳐 1996년 3월 25일부터 30일 사이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의 경우 담임선생님의 지도로 교실에서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어머니의 경우는 아동을 통해 배부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2-3일 후에 담임선생님이 수거한 것을 본 연구자가 회수하였다. 아동용과 어머니용 질문지 총 786부 중 768부가 회수되었고, 이들 중 부실기재하거나 쌍을 맞출 수 없는 자료를 제외하고 총 730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 3. 측정 도구

### 1) 또래관계

본 연구에서는 Furman(1985)이 제작한 사회

적 관계망 척도(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 NRI)를 번안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거친 한종혜(199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NRI는 전체 33문항으로 사회적 지지, 처벌/주도권, 친밀, 우의, 대립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사회적 관계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 척도 중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망만을 측정하였고, 예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상 아동들의 수준에 맞도록 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한종혜(1996)가 보고한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3$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을 한 결과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 요인들의 총 설명변량은 59.3%였다.

### 2) 사회적 능력

사회적 행동에 대한 평가는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관습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사회적 능력 또한 각 문화권에서 다른 의미를 갖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 된다(Chen, Rubin, & Sun,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과 문화에 맞도록 이경희(1993)가 제작한 사회적 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어머니가 평정하는 것으로 전체 27문항으로 되어 있다. 또한 5점 Likert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사회적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주도성, 사교성, 책임감, 개방성의 네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경희(1993)가 보고한 척도의 Cronbach  $\alpha$ 는 .68~.81이며, 요인 분석을 한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 요인들의 총 설명변량은 83.7%였다.

## 4. 자료 분석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아동의 성별, 학년에 따른 또래관계의 하위요인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각각 이원 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 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모든 경우의 유의 수준은  $\alpha=.05$ 로 하고 이상의 통계 처리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하위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동들이 가장 높게 지각한 요인은 사회적 지지로 평균 3.50이었고, 다음으로 우의는 평균 3.32, 친밀은 평균 2.89였다. 그 외 대립과 처벌/주도권에 대한 아동들의 지각은 각각 평균 2.48과 평균 2.46으로 나타났다.

&lt;표 1&gt; 성별, 학년별 또래관계의 평균과 표준편차

(N=365)

또래관계	4 학 년			6 학 년			전 체	
	남 <i>M</i> ( <i>SD</i> )	여 <i>M</i> ( <i>SD</i> )	합계 <i>M</i> ( <i>SD</i> )	남 <i>M</i> ( <i>SD</i> )	여 <i>M</i> ( <i>SD</i> )	합계 <i>M</i> ( <i>SD</i> )	남 <i>M</i> ( <i>SD</i> )	여 <i>M</i> ( <i>SD</i> )
사회적 지지	3.37 (.69)	3.62 (.63)	3.51 (.67)	3.44 (.72)	3.54 (.67)	3.49 (.70)	3.41 (.71)	3.58 (.65)
처벌/주도권	2.41 (.57)	2.29 (.61)	2.34 (.59)	2.60 (.62)	2.54 (.57)	2.57 (.59)	2.51 (.60)	2.41 (.60)
친 밀	2.69 (.89)	2.85 (.78)	2.77 (.83)	2.91 (.86)	3.09 (.84)	3.00 (.87)	2.81 (.89)	2.96 (.81)
우 의	3.47 (.89)	3.12 (.96)	3.28 (.94)	3.38 (1.06)	3.33 (.90)	3.36 (.98)	3.43 (.98)	3.22 (.94)
대 립	2.48 (.77)	2.37 (.71)	2.42 (.72)	2.61 (.72)	2.46 (.73)	2.54 (.73)	2.55 (.74)	2.41 (.72)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성별과 학년(4, 6학년)에 따라 또래관계의 하위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에 대한 이원변량 분석

또래관계	성별(A)	학년(B)	A×B	오차
사회적 지지				
MS	784.46	1.83	177.73	133.01
F	5.90*	.01	1.34	
차별/주도권				
MS	27.94	159.98	4.50	12.70
F	2.20	12.60***	.35	
친밀				
MS	40.69	80.81	.23	11.52
F	3.52	7.02**	.02	
우의				
MS	33.51	3.77	18.73	3.24
F	4.10*	.457	2.28	
대립				
MS	14.07	10.03	.60	.13
F	2.92	2.08	.13	

\* $p < .05$  \*\* $p < .01$  \*\*\* $p < .001$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 차별/주도권, 친밀, 우의에서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모든 하위 요인에서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으나 우의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학년에 따른 주효과는 차별/주도권, 친밀에서 나타나서 이 두 요인은 6학년 아동이 4학년 아동보다 더욱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의 성별, 학년 각각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계산하여 두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성별, 학년별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관계

	사 회 적 능 력			
	성 별		학 년	
	남	여	4학년	6학년
사회적 지지	.229**	.436***	.411***	.270***
차별/주도권	.137*	-.005	.020	.088
친밀	.165*	.196**	.199*	.172
우의	.187**	.172**	.169*	.171*
대립	.046	.012	.134*	-.094

\* $p < .05$  \*\* $p < .01$  \*\*\* $p < .001$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사회적 지지와 친밀은 남아보다 여아의 사회적 능력과 상관이 높은 반면, 우의는 여아보다 남아의 사회적 능력과 상관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차별/주도권 요인은 남아의 사회적 능력과만 어느 정도 상관을 보였다. 학년에 따른 두 변인간의 상관도 차이를 보였는데, 사회적 지지와 친밀은 6학년보다 4학년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우의는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에 있어 학년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대립은 4학년의 사회적 능력에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가 사회적 능력을 어느 정도 설명해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성별과

학년은 가변수(dummy variables)화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본 연구의 변인들이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만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

적 능력에 대한 또래관계 각 요인과 아동의 성별, 학년에 대한 단계별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사회적 능력과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 성별, 학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예언변인		B	$\alpha$	R	R <sup>2</sup>	F
사회적 능력	사회적 지지	.435	.339	.339	.115	47.047***

\* $p < .05$  \*\* $p < .01$  \*\*\* $p < .001$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설명하는데 또래관계 중 사회적 지지 하나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으며, 11.5%의 설명력을 보였다.

#### I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 1)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

아동들은 또래관계에서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지, 친밀, 우의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은 중간 이상으로 높게 지각하였고, 처벌/주도권, 대립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은 중간 이하로 비교적 낮게 지각하였다. 이는 Furman과 Buhrmester (1992)가 또래관계에서 대립이나 처벌/주도권보다는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한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볼 때, 이 시기에 나타나는 또래간 동조성은 단순한 행동의 통제라기 보다는 상호적 의견형성을 통한 행동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를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지지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더욱 높게 지각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 연구

(Furman & Buhrmester, 1985, 1992)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친구로부터의 애정, 자아가치감을 더욱 높게 지각하고, 남아보다 더 깊이 친구에게 의지한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친구관계에서 기대되는 특성으로 보다 뚜렷히 나타나게 되므로(Furman & Bierman, 1984), 발달적인 면에서 여아의 또래관계가 같은 연령의 남아보다 더욱 성숙하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처벌/주도권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6학년 아동이 4학년 아동보다 더욱 높게 지각하고 있었는데, Furman과 Buhrmester(199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간 상호작용이 아동 후기에 더욱 밀착됨에 따라 또래 집단내 규칙에 위배될 경우는 또래로부터 보다 많은 압력을 지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시기 또래간 상호작용내에서도 주도권을 갖는 지도자와 수행자의 역할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친밀은 6학년 아동이 4학년 아동보다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Sullivan(1953)이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아동후기동안 개인간 상호작용을 이끄는 강력한 동기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 주장을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선행 연구 결과, 여아들은 남아보다 또래관계



에서 친밀감을 높게 지각한다는 견해(Furman & Buhrmester, 1985; Sharabany et al., 1981)와 남아와 여아가 지각한 친밀감의 정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있었으나(Berndt & Perry, 1986; Sharabany et al., 1981), 본 연구의 결과는 후자의 견해와 일치하였다. 넷째, 우의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지각하였다. 초등학교 2, 5, 11학년을 대상으로 한 Buhrmester와 Furman(1987)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또래관계에서 우의를 지각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우의가 4학년보다 6학년에 좀 더 증가하였으나, 학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이는 연구대상간 학년의 차이가 선행 연구에 비해 보다 작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아동 중기, 후기를 거쳐 청소년기까지 좀 더 넓은 연령범위를 대상으로 발달적 정보를 알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섯째, 대립은 성별이나 학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선행 연구(Furman & Buhrmester, 1992; Hartup et al., 1988)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일정정도 이상의 대립이 발생할 경우 친구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고 할 때 부정적 요인에 대한 친구관계 유지의 상한선은 성별이나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같이 또래관계는 각 하위 요인에 따라 남아와 여아의 경우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4학년 아동보다 6학년 아동이 지각한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아동 중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또래관계가 보다 밀착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 2)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는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남아와 여아 모두 사회적 능력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요인은 사회적 지지였으나, 이는 남아보다 여아의 사회적 능력과 더욱 밀접히 관련되었다. 사회적 지지 다음으로 사회적 능력과 연관되는 요인은 여아의 경우는 친밀, 남아의 경우는 우의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여아들은 또래관계에서 심도있는 양자관계를 선호하는 반면, 남아들은 보다 여러 또래들과의 확장적인 관계를 선호한다(Furman & Buhrmester, 1985 재인용). 따라서 여아들에게는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호작용과 같이 보다 심도있는 양자관계에서 나타나는 관계가 더 큰 의미를 가지며, 남아들에게는 같이 놀아주고, 재미있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상호작용과 같이 또래와의 어울림 자체가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각 요인들은 남아와 여아의 사회적 능력에 각기 다른 유형으로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처벌/주도권은 여아의 사회적 능력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남아의 사회적 능력과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한중혜(1996)의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에서 처벌/주도권 요인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적의 상관을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 부정적인 상호작용 요인이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아동의 학년에 따른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 친밀은 6학년보다 4학년의 사회적 능력과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대립은 4학년의 경우만 사회적 능력과 어느 정도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 아동 중기에서 후기로 발달함에 따라 또래간 상호작용은 보다 심화되므로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도 4학년보다 6학년

아동의 경우에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및 친밀과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은 4학년 아동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관련된 선행 연구는 찾아볼 수 없어 해석상 어려움이 있으나, 본 연구 결과는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관계가 연령에 따라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달적인 면에서 두 변인간의 관련성이 더욱 증가하는지 또는 감소하는지는 추후의 종단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친밀, 우의는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또래관계에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사회적 능력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 연구들(강민주, 1993; 이주리, 1991; 한종혜, 1996; Harter, 1982)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아동이 지각한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역량 지각이나 자아 지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또래관계의 긍정적인 요인 중 사회적 지지의 경우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 중 11.5%를 설명하고 있어 단일 변인으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즉,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결속력이 높고, 애정·만족·인정·보살핌의 특성을 가진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사회적 능력의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러한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이 타인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능력 등을 포함한 사회 인지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실행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연령이 증가하여 청소년기에 가까워짐에 따라 부모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고자 하나 완전히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미숙하여 또래로부터의 지지와 지도에 보다 의지하게 되므로, 이 시기 또래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은 아동

발달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하겠다.

## 2.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은 사회적 지지이고 다음으로는 우의, 친밀 순으로 중간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며, 대립과 처벌/주도권은 중간 이하의 수준을 보인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는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사회적 지지는 여아가 더욱 높게 지각하고 있는 반면, 우의는 남아가 더욱 높게 지각하고 있고, 처벌/주도권과 친밀은 4학년 아동이 지각한 수준에 비하여 6학년에서 매우 높아진다. 셋째,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데, 사회적 지지와 친밀, 우의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높게 나타난다. 넷째,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는 사회적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11.5%의 설명력을 갖는다.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근거로 추후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능력을 어머니가 평정하도록 하였으나, 부모, 교사, 또래, 또는 아동 자신의 지각을 이용한 평가를 종합한다면 보다 신뢰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발달적 관점에서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대상을 청소년기까지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출생 동시 집단 효과를 배제할 수 있는 종단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강민주(1993).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지

- 각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희(1993).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순(1995).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정서적 행동과 귀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숙과 정미자(1995). 아동의 또래 수용도 및 관련변인. *대한가정학회지*, 3(2), 103-112.
- 이주리(1994). 유아 및 아동의 가정 환경 및 또래 환경과 역량 지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중혜(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 지각 및 자아 존중감.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sher, S. R. (1983). Social competence and peer status:Recent advances and future directions. *Child Development*, 54, 1427-1434.
- Asher, S. R., Hymel, S., & Renshaw, P. D. (1984). Lonelines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456-1464.
- Berndt, T. J., & Perry, T. B. (1986). Children's perceptions of friendships as supportive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22(5), 640-648.
- Boivin, M. & Begin, G. (1989). Peer status and self-perception among early elementary school children:The case of the reject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0, 591-596.
- Buhrmester, D. (1990). Intimacy of friendship,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adjustment during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101-1111.
- Buhrmester, D., & Furman, W. (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 1101-1113.
- Chen, X., Rubin, K. H., & Sun, Y. (1992). Social reputation and peer relationship in Chinese and Canadian children:A cross-cultural study. *Child Development*, 63, 1336-1343.
-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H. (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A cross-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4), 557-570.
- Cole, M., & Cole, S. (1993). *The development of children*. 2nd ed. NY:W. H. Freeman and Company.
- Costin, S. E., & Jones, D. C. (1992). Friendship as a facilitator of emotional responsiveness and prosocial interventions among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41-947.
- Diaz, R. M. & Berndt, T. J. (1982). Children's knowledge of a best friend: Fact or 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28, 787-794.
- Dodge, K. A. (1983). Behavioral antecedents of peer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54, 1386-1399.
- East, P. L. & Rook, K. S. (1992). Compensatory patterns of support among children's peer relationships:A test using

- school friends, nonschool friends, and sibling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 163-172.
- Ellis, S., Rogoff, B., & Cromer, C. C. (1981). Age segregation in children's social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17(4), 399-407.
- French, D. C. & Waas, G. A. (1985). Behavior problems of peer-neglected and peer-rejected elementary-age children: Parent and teacher perspectives. *Child Development*, 56, 246-252.
- Furman, W. & Bierman, K. L. (1984). Children's conceptions of friendship: A multimethod study of developmental changes. *Developmental Psychology*, 20(5), 925-931.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16-1024.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Furman, W., Rahe, D. F., & Hartup, W. W. (1979). Rehabilitation of socially withdrawn preschool children through mixed-age and same-age socialization. *Child Development*, 50, 915-922.
- Gavin, L. & Furman, W. (1989). The development of cliques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5, 827-834.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up, W. W. (1992). Peer relations in early and middle childhood. *Handbook of social development*. NY: Plenum Press.
- Hartup, W. W., French, D. C., Lourse, B., & Ogawa, M. K. J. (1993). Conflict and friendship relations in middle childhood: Behavior in a closed-field situation. *Child Development*, 64, 445-454.
- Hartup, W. W., Laursen, B., Stewart, M. I., & Eastenson, A. (1988). Conflict and the friendship relations of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9, 1590-1600.
- Hirsch, B. J. & Reischl, T. M. (1985). Social networks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 comparison of adolescent children of a depressed, arthritic, or normal par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3), 272-281.
- Hunter, F. T. & Youniss, J. (1982). Changes in functions of three relation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6), 806-811.
- Kramer, L. & Gottman, J. M. (1992). Becoming a sibling: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685-699.
- Ladd, G. (1981). Effectiveness of a social

- learning method for enhancing children's social interaction and peer acceptance. *Child Development*, 52, 171-178.
- Parkhurst, J. T., & Asher, S. R. (1992). Peer rejection in middle school: Subgroup differences in behavior, loneliness, and interpersonal concer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2), 231-241.
- Pellegrini, D. S. (1985). Social cognition and competence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6, 253-264.
- Rubin, K. H. (1983). Recent perspectives on social competence and peer status: Some introductory remarks. *Child Development*, 54, 1383-1385.
- Sharabany, R., Gershoni, R., & Hofman, J. E. (1981). Girlfriend, boyfriend: Age and sex differences in intimate friend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17(6), 800-808.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Y: W. W. Norton & Company
- Suomi, S. J., & Harlow, H. F. (1972). Social rehabilitation of isolate-reared monkeys. *Developmental Psychology*, 6(3), 487-496.